

중앙아시아 지역 한인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유형의 국제 비교 -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

박영선^{1*} · 정영숙²

¹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Identifying Perceptual Dimensions and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in Central Asia - Comparisons Among Koreans Living in Yanbian, Mongolia, and Uzbekistan -

Young-Sun Park^{1*}, Young-Sook Chung²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aegu University

²Departmen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dimensions and patterns of the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for Koreans living in Yanbian, Mongolia and Uzbekistan. Items representing the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were combined into a dimension and a pattern based on underlying perception of the Koreans living in the area. Any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s living in these areas likely reflects their different dimensions and patterns. Thus,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if Koreans living in Yanbian, Mongolia and Uzbekistan should be treated as a homogeneous group when defining their perceptual structure of traditional food. Factor and cluster analysis of the data generated in this study revealed two different dimensions and patterns for each group of Koreans living in Yanbian, Mongolia and Uzbekistan. However, the structure of the dimensions and patterns of the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differed, indicating that Koreans within and between the countries are not a homogeneous group.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ual dimensions and patterns among Yanbian, Mongolian and Uzbekistan-Koreans are also discussed. Moreover, future implications for food and nutrition specialists,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 an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food in Asia and those who have an interest in glob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are provided.

Key Words: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Yanbian-Koreans, Mongolian-Koreans, Uzbekistan-Koreans

1. 서 론

오늘 날 한반도 외부에는 680만명 이상의 한국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연변 조선인 자치구를 중심으로 233만명, 구소련에는 냉전 종결시 50만명을 웃도는 한국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베크인을 비롯하여 고려인, 러시아인, 타지크인, 카자흐인, 타타르인 등 100여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외교통상부(2009)의 독립국가연합(CIS) 자료에 의하면 고려인 분포가 러시아 전역에 34%, 우즈베키스탄이 27%(17만 6천명), 카자흐스탄이 16%, 그 외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등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이 5%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에도 2003년에는 870명 정도였으나 2009년 현재 2,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9).

과거에는 연변을 비롯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한인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여러 유형의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고 그것을 계기로 일반인이 해외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 한인의 문화적 동질성을 논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전통식생활인데, 실제 이들은 한국전통식생활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인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여전히 김치를 먹고 있고 이것으로 김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식생활 문화를 분류하면 절후(節侯)에 따라 계절과 음식을 조화시키고 풍류를 즐기는 절식(節食)과 시식(時食)이 있으며, 한 사람이 출생하여 생(生)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겪는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출산과 혼례, 상례와 제례 등의 통과례 음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대대로 내

*Corresponding author: Young Sun Par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aegu University, 15 Naeriri, Kyungbuk Kyungsan City, Korea
Tel: 82-53-850-6803 Fax: 82-53-850-6809 E-mail: yspark1@daegu.ac.kr

려오는 고유음식을 전통음식이라고 하나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각 지역에서 다른 민족을 의식하며 그들과의 대비 속에서 생활하므로 횡적개념에서 우리의 전통음식을 민족음식이라고 일컫고 있다.

전통식생활의 문화적 가치는 첫째, 생명유지, 종족보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성이 기본이며 둘째,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전승되어 오면서 우리 몸에 맞는 과학성이 입증된 음식이며 셋째, 각 민족이 갖는 개성이 있어 산업발달과 대량화로 인한 문화적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넷째, 각 민족으로 하여금 동질성과 소속감을 갖게 하므로 문화유산으로 소중하며 미래생활에도 중요하다. 다섯째, 식생활문화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전통적 요소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주거나 복식구조와 달리 민족정체성과 가장 연관성이 깊다. 실제로 해외 한인들의 의식주 생활실태를 조사한 연구(Kang 2001; Jeong 2003; Lim 2007)에 의하면 한국인의 전통양식이 가장 잘 보존, 유지되고 있는 영역은 식생활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통양식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타민족이 가지는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의 인식체계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문화란 내적 변화와 외적 자극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축적되며 소멸되기도 하므로 풍토에 따라 상이하게 정착된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한인들이 한국 전통음식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준거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준거는 한국전통음식문화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에게 식생활 문화의 가치와 그러한 식생활 문화가 형성되게 된 동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은 식품영양학계 뿐 아니라 식품산업계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생활 속에 내재된 문화가 강조되고 세계는 자국의 문화를 상품화하는 문화글로벌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통식생활 문화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데 이유는 전통적 요소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외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전통음식에 대한 국제 비교는 문헌의 일부로써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발전 및 개선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과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가지는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구조를 규명하고 이러한 인식구조가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생활풍습인 전통식생활 문화의 본질을 규명하고, 민족공동체 정서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한국전통음식을 정립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자료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1996년 1월에 연변대학교 학생들에게 일정 분량의 설문지를 배당시켜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2003년 7월에 1차 조사 때의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면접 조사를 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조사대상자는 200명이다.

몽골 지역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1차 자료는 2000년 10월에 예비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조사도구인 설문지에 수정보완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2001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 주부 305명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자료는 2006년 9월에 한인 거주비율이 높은 타슈켄트 지역을 중심으로 634명의 한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에서 예비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설문지에 수정보완하였다. 수집방법은 고려인 주부들에게 일정 분량의 설문지를 배당해 주고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는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한 영역은 한인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영역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전통상차림에 대한 인지도,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통음식의 계승 및 발전 방향, 한국전통음식을 개발할 필요성과 개발할 경우의 이용의사 등이다. 이들 요인은 모두 5점 Likert형 척도로 1점은 '전혀 모른다' 또는 '매우 좋지 않다'를, 3점은 '보통'을, 그리고 5점은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매우 좋다'를 반영한다.

3. 분석방법

1)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은 인식요인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인식요인차원을 분석하기 위해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요인분석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속성이 유사한 변수들을 서로 관련이 있는 몇 개의 요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변수에는 공통 요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찾아내어 집단의 공통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요인으로 묶이는 항목 간에는 상관관

계가 높은 데 비해 요인 간에는 상호 독립성이 유지된다. 이는 요인 내의 항목들은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는데 비해 요인 간에는 차별적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요인수 지정은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유값은 요인이 설명해 주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며 최적 요인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인수의 결정기준은 1이며 고유값이 1 이상이면 여러 개의 변수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1 이하이면 하나의 요인으로서의 의미가 없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은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으며, 요인분석에 의해 묶임 공통요인은 Cronbach's α 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항목 간의 내적일관성 또는 동질성을 반영하는 Cronbach α 계수는 일반적으로 $0.3 < \alpha < 0.5$ 의 범위이면 일관성이 보통이고 $\alpha > 0.6$ 이상이면 일관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Chung, 2008).

2)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규명하였다. 요인분석이 유사한 특성을 가진 '변수'들을 묶는 방법이라면 군집분석은 특성이 유사한 대상 또는 사람을 집단으로 묶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은 상관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변수들의 값을 수리적 거리(euclidean distance)로 환산하여 동질적 집단으로 편입시킨다. 요인분석은 요인적재량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할 수 있으나 군집분석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없으므로 변수를 선정할 때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자료가 몇 개의 군집으로 묶이느냐를 파악해야 한다. 군집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덴드로그램(dendrogram) 기법을 적용하였다.

군집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실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인분석의 스크리(scree) 도표와 유사한 덴드로그램 기법을 적용하여 각 층별 간의 거리를 환산하고 군집수를 정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파악된 군집수를 지정해 준 뒤 빠른 군집분석(quick cluster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여기서 지역별 한인들 간의 인식요인에서 유사한 위치를 가진 한인들끼리 묶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점수가 기초가 되어 수행된다. 인식점수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데는 유클리드 거리자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이 적용되었고, 동질적인 한인을 묶는 방법으로는 워드법(Ward's method)이 적용되었으며, 군집수를 결정하는 데는 묶임 계수(fusion coefficient)와 덴드로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인식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요인분석 및 분산분석에 적용된 항목들의 분산은 분산분석(ANOVA)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변 한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연변 한인의 연령부터 살펴보면 30대(28.7%)와 40대(28.3%)의 분포가 비슷하면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포가 더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이루는 연령집단이 60대 이상(18.8%)이며 20대(12.6%)와 50대(12.3%)는 상대적 분포가 다소 낮았다. 학력은 중졸의 분포가 3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졸(25.6%)이며 대졸의 분포가 14.2%로 가장 낮았다.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구분되는 가족유형은 연변 한인의 경우 91.2%가 핵가족이고 8.8%만이 확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가족수는 평균 3.3명이며 결혼년수는 13.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몽골 한인

연령집단 중 40대가 3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로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12.9%), 50대(11.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 / M(SD)

Variables	Categories	Yanbian Koreans N (%)	Mongolian Koreans N (%)	Uzbekistan Koreans N (%)
Age	Below 29	25 (12.6)	48 (15.9)	73 (11.5)
	30-39	57 (28.7)	84 (27.7)	93 (14.7)
	40-49	56 (28.3)	105 (34.4)	235 (37.1)
	50-99	25 (12.3)	34 (11.1)	136 (21.5)
	Higher than 60	37 (18.8)	33 (10.8)	97 (15.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41 (20.4)	29 (9.8)	91 (14.9)
	Junior high school	80 (39.8)	110 (37.3)	113 (18.5)
	High school	51 (25.6)	101 (34.2)	116 (19.0)
	More than college	28 (14.2)	55 (18.7)	292 (47.8)
Family type	Nuclear family	182 (91.2)	237 (77.7)	532 (84.3)
	Extended family	18 (8.8)	68 (22.2)	99 (15.7)
Family size	Mean size (std. dev.)	3.3 (1.1)	3.9 (1.2)	3.7 (1.2)
Years of marriage	Mean years (std. dev.)	20.7 (13.3)	18.5 (9.2)	20.1 (10.8)
Total	Number	200	305	634

60대 이상(10.8%)의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연변 한인과 같이 중졸의 분포가 3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졸로 34.2%이며 초등학교 졸업이 9.8%로 가장 낮았다. 몽골은 핵가족이 77.7%이고 확대가족이 22.2%로 연변 한인에 비해 확대가족의 분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족수는 3.9명으로 연변이나 우즈베키스탄보다 조금 더 많았으나 평균 결혼년수는 18.5년으로 연변과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다소 낮았다.

3) 우즈베키스탄 한인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몽골 한인처럼 40대가 37.1%로 가장 많고 20대가 11.5%로 가장 적다.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는 집단이 50대로 21.5%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졸이 47.8%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이 14.9%로 가장 적었다. 중졸과 고졸은 각각 18.5%와 19.0%로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가족유형 중 핵가족은 84.3%이고 나머지 15.7%는 확대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평균 3.7명이며 결혼년수는 20.1년으로 연변의 20.7년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2.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perceptual dimension)을 측정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행한 결과와 요인별 측정항목, 각 항목의 회전(varimax rotation) 후 요인적재량 및 신뢰도(Cronbach

α) 등이 각 Table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포함된 항목들은 스크리 검중(scree test) 결과 연변과 몽골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까지 모두 2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구조와 특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1) 연변 한인

연변 한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으며, 2개 요인의 총분산은 54.87%(29.53% vs. 2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통성 지향차원'으로 전통음식 뿐 아니라 반상, 돌상, 회갑상, 제상 등 전통상차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요인 2는 전통음식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전통음식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통음식이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음식이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되면 적극 이용하겠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은 '현대화 지향차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몽골 한인

몽골 한인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몽골 한인도 연변 한인과 유사하게 2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2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분산은 72.31%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Yanbian Koreans

Items	Tradition oriented	Modern oriented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0.857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0.816	
Assessment of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0.494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0.662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0.602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0.581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0.463
Eigenvalue	2.16	1.13
% of Variance	29.53	25.34
Total variance	29.53	54.87
Cronbach's α	0.63	0.51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Mongolian Koreans

Items	Tradition oriented	Modern oriented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0.759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0.738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0.732	
Assessment of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0.629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0.592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0.769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0.716
Eigenvalue	2.52	1.14
% of Variance	46.06	26.25
Total variance	46.06	72.31
Cronbach's α	0.72	0.67

<Table 4> Results of Factor Analysis: *Uzbekistan Koreans*

Items	Tradition oriented	Modern oriented
Perception of <i>Korean</i> traditional food	0.805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0.795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0.484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0.458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0.802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0.627
Assessment of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0.526
Eigenvalue	1.65	1.43
% of Variance	33.56	30.44
Total variance	33.56	64.00
Cronbach's α	0.62	0.52

<Table 5> Results of Cluster Analysis: *Yanbian Koreans*

Items	Cluster 1	Cluster 2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	3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3	3
Assessment of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4	4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3	3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4	3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5	4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4	3
Number of cases	103	97
Percent of cases	51.5	48.5

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통성 지향차원’으로 전통상차림과 전통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전통음식이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며, 외래음식과 비교하여 우리의 전통음식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전통음식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야 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요인 2는 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통음식이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된다면 많이 이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비치고 있다. 요인 2는 ‘현대화 지향차원’을 반영하고 있다.

3) 우즈베키스탄 한인

우즈베키스탄 한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도 연변 및 몽골 한인들과 같이 2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인구조는 차이가 있다. 2개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분산은 64%이다. 요인 1은 전통음식과 전통상차림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된다면 전통음식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전통음식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인 1은 전통음식과 전통상차림에 대한 인식이 높은 요인부하량이 있는 만큼 ‘전통성 지향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요인 2에는 세 개 항목이 같이 묶였는데 요인부하량이 높은 항목은 전통음식이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래음식과 비교 할 때 전

통음식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은 ‘현대화 지향차원’을 나타낸다.

3.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

이번에는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 지역 한인들이 가지는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군집분석은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덴드로그램을 이용하여 X축은 군집수, Y축은 fusion coefficient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에서 각 층별 간의 기울기에 따라서 군집수가 결정되는데 세 지역 모두 2개의 군집이 최적 군집(optimal cluster)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euclidean distance 측도를 이용하여 덴드로그램으로 파악된 군집수를 정해 준 뒤 quick cluster를 실행하여 인식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1) 연변 한인

연변 한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Table 5>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한인들 중 51.5%는 군집 1과 같은 인식유형을 지니고 있고 나머지 48.5%는 군집 2와 같은 유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 전통음식의 계승에 대한 인식 등은 집단 간에 차이 없이 인식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전통상차림에 대한 인식이나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 개발될 음식에

<Table 6> Results of Variance Analysis: Yanbian Koreans

Items	Mean square	F ratio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15.93	49.33***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27.31	62.78***
Assessment of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14.13	43.16***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61.75	174.05***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2.23	7.65***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2.85	6.62**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6.18	12.51***

*p<0.05 **p<0.01 ***p<0.001

<Table 7> Results of Cluster Analysis: Mongolian Koreans

Items	Cluster 1	Cluster 2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3	2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3	2
Assessment of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4	3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4	3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4	3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4	3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3	3
Number of cases	221	84
Percent of cases	72.5	27.5

대한 이용의사 등에 대한 항목은 군집 1에 속하는 한인들이 군집 2에 속하는 한인들보다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유형 간에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요인분석에서 파악된 ‘전통성 인지차원’과 ‘현대화 지향차원’은 인식수준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유형을 가진 집단을 분류하는 군집분석에서는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이 높고 낮음으로 집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군집 1은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이고, 군집 2는 낮은 집단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Table 6>은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에 포함된 항목들의 분산을 검증한 결과이며 각 항목들이 p<0.01과 p<0.001의 높은 유의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에 포함된 항목들이 전통음식의 인식차원 및 인식유형을 규명하는데 적합하다는 점과 항목들이 상호 연관된 몇 개의 요인 및 군집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2) 몽골 한인

몽골 한인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의 인식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나 있다. 전체 한인들 중 72.5%는 전통음식에 대해 군집 1과 같은 인식유형을 가지고 나머지 27.5%는 군집 2와 같은 유형을 지니고 있다. 항목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몽골 한인들은 전체적으로 전통음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군집별 인식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집 1에 속하는 한인들은 2에 속하는 경우보다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항목별로 모두 높았고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된다면 전통음식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항목에 대한 인식수준만 두 집단이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군집 1은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 전통음식을 계승하고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몽골 한인의 경우 요인분석에서 변인 간의 공통 요인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두 가지 차원은 연변 한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식유형이 유사한 집단으로 묶는 군집분석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은 전통성 지향차원과 현대화 지향차원으로 구분되는데 비해 실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군집분석에서는 차원의 특성보다 인식수준의 고저가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각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달랐다. 요인 및 군집분석에 포함된 항목들의 분산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항목들이 p<0.05, p<0.01, p<0.001의 유의성을 지니고 있다.

3) 우즈베키스탄 한인

우즈베키스탄 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나 있다. 전체 우즈베키스탄 한인들 중 57.2%는 군집 1과 같은 인식유형을, 42.8%는 군집 2와 같은 유형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군집분석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 전통음식이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된다면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향 등은 두 집단 모두 평균 4점을 나타내었고 또한 인식수준의 전반적 분포가 높다는 점이다. 그 외 항목들은 군집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군집별로 차이가 있는 항목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군집 1은 군집 2에 비해 전통음식과 전통상차림 그리고 전통음식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았으나 전통음식

<Table 8> Results of Variance Analysis: *Mongolian Koreans*

Items	Mean square	F ratio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51.95	86.56**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5.37	76.12***
Assessment of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59.02	87.32***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70.80	111.69***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68.41	98.51***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58.84	34.28***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3.32	3.66*

*p<0.05 **p<0.01 ***p<0.001

<Table 9> Results of Cluster Analysis: *Uzbekistan Koreans*

Items	Cluster 1	Cluster 2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4	3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	3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5	4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4	4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2	4
Assessment of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4	4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4	4
Number of cases	350	262
Percent of cases	57.2	42.8

<Table 10> Results of Variance Analysis: *Uzbekistan Koreans*

Items	Mean square	F ratio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55.28	53.67***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99.08	63.95***
Assessment of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14.20	16.89**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26.21	31.72***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49.12	55.59***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15.06	15.71***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17.91	26.90***

*p<0.05 **p<0.01 ***p<0.001

을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전통음식을 다음 세대에까지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은 5점으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군집 1은 ‘전통성 지향유형’을 반영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군집 2는 다른 항목에 대한 인식수준은 군집 1보다 낮았으나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집 1보다 월등히 높고 또 상당히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군집 2는 ‘현대화 지향유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식차원과 인식유형 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항목 간의 공통요인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두 가지 차원 즉 ‘전통성 지향차원’, ‘현대화 지향차원’은 인식수준이 비슷한 유형으로 묶는 군집분석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연변이나 몽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요인차원과 요인유형 간에 차이가 있어 같은 한인이자 할지라도 지역별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은 각 분석에 포함된 항목들의 분산을 검증한 결과이며, 모두 p<0.01 또는 p<0.001의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과 인식유형의 국가별 비교

1)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 비교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해 가지는 인식차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다. 공통점은 전통성 인지차원을 반영하는 요인 1에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 모두 전통음식과 전통상차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항목이 모두 높은 요인부하량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 모두 현대화 지향차원에 포함되어 있다.

차이점은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연변과 몽골은 요인 1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동 요인이 현대화 지향차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식의 계승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연변은 전통음식의 개발 필요성과 함께 현대화 지향차원을 반영하는 요인 2에 포함되어 있으나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음식의 계승에 대한 인식이 전통성 지향차원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전통음식이 건강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연

<Table 11> Comparison of Perceptual Dimensions among Yanbian, Mongolian, and Uzbekistan-Koreans

Items	Yanbian Koreans	Mongolian Koreans	Uzbekistan Koreans
Perception of KTF (Korean traditional food)	F1(.82)	F1(.74)	F1(.80)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TF	F1(.86)	F1(.76)	F1(.81)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TF		F1(.59)	F1(.46)
Impact of KTF on health	F2(.66)	F1(.73)	F2(.80)
Need for development of KTF	F2(.58)	F2(.77)	F2(.63)
Assess. of comparing KTF w. foreign food	F1(.50)	F1(.63)	F2(.53)
Intention of using KTF	F2(.46)	F2(.72)	F1(.48)

F1=Tradition oriented, F2=Modern oriented

<Table 12> Comparison of Perceptual Pattern Types among Yanbian, Mongolian, and Uzbekistan-Koreans

Items	Yanbian Koreans		Mongolian Koreans		Uzbekistan Koreans	
	Cluster1	Cluster2	Cluster1	Cluster2	Cluster1	Cluster2
Perception of KTF (Korean traditional food)	4	3	3	2	4	3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TF	3	3	3	2	4	3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TF	4	4	4	3	5	4
Impact of KTF on health	3	3	4	3	4	4
Need for development of KTF	4	3	4	3	2	4
Assess. of comparing KTF with foreign food	5	4	4	3	4	4
Intention of using KTF	4	3	3	3	4	4
Number of cases	103	97	221	84	350	262
Percent of cases	51.5	48.5	72.5	27.5	57.2	42.8

변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대화 지향차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몽골은 전통성 지향차원에 포함되어 있다.

전통음식이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될 경우 이용할 의향은 연변과 몽골의 경우 현대화 지향차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성 인지차원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차원이라도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해 연변은 현대화 지향차원이 계승 및 개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용할 의사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성을 지니는데 비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성 인지차원이 전통음식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특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2)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 비교

이번에는 <Table 12>를 통해 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전통음식에 대해 가지는 인식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음식의 계승에 대한 인식과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인식은 세 지역 모두 매우 높았다. 특히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에 대해 연변의 경우 군집 1에 속하는 한인들은 5점 리커트형 척도에 평균 5점의 인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연변(5 vs. 4)과 몽골(4 vs. 3)은 군집별로 우수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우즈베키스탄(4 vs. 4)은 군집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인식차이가 컸다. 즉 연변과 몽골의 군집 1과 우즈베키스탄의 군집 2는 전통음식이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 문화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식

하는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군집 2가 옛날 그대로 전통성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연변(3 vs. 3)과 우즈베키스탄(4 vs. 4)은 군집 1과 군집 2의 집단별 수준이 같았으나 몽골은 군집별 인식수준(4 vs. 3)에 차이가 있었다. 연변과 우즈베키스탄은 비록 군집별 차이는 없었지만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연변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이 더 높았다.

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과 개발될 경우 이용할 의사에 대한 항목은 지역별 차이가 컸다. 연변은 개발 필요성과 이용의사에 대한 군집별 평균 점수가 같았으나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달랐다. 즉 몽골은 군집별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4(군집 1) vs. 3(군집 2)이었으나 이용의사는 3(군집 1) vs. 3(군집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집 1의 경우 전통음식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실지로 개발될 경우 이용의사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개발 필요성이 2(군집 1) vs. 4(군집 2)였으나 실지로 개발될 경우 이용할 의사는 4(군집 1) vs. 4(군집 2)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화 지향유형을 반영하는 군집 2는 개발 필요성도 긍정적이지만 실제 개발될 경우 이용의사도 적극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반해 전통성 지향유형을 반영하는 군집 1은 전통음식을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성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개발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실제 개발될 경우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식유형이란 큰 틀에서 지역별로 비교해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인식유형의 구조를 보면 연변과 몽골은 유형이 인식수준의 높고 낮음으로 구조화되는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그렇지 않았다. 군집 1은 다른 모든 항목에 대한 인식수준은 군집 2에 비해 높았으나 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연변과 몽골은 인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았다. 이는 각 지역 한인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이 집단 간에도 차이가 있지만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 한인 간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과 인식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식차원을 규명하는 요인분석에서는 연변과 몽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한인들은 각각 전통성 인지차원과 현대화 지향차원의 특성을 지닌 2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구조와 특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가지는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이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즉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 간에도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인식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세 지역 한인들이 가지는 인식차원의 공통점은 전통음식과 전통상차림에 대한 항목은 모두 전통성 인지차원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지니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은 연변과 몽골은 전통성 인지차원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현대화 지향차원에 포함되어 있다. 전통음식의 계승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연변은 현대화 지향차원에,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성 지향차원에 포함되어 있다.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연변과 우즈베키스탄은 현대화 지향차원에, 몽골은 전통성 지향차원에 포함되어 있다. 전통음식이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될 경우 이용할 의향에 대해 연변과 몽골은 현대화 지향차원에,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성 인지차원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연변은 현대화 지향차원 그리고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성 인지차원이 한국 전통음식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유형을 규명하는 군집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전통음식의 계승과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세 지역 모두 매우 높다는 것이다. 연변의 경우 외래음식과 비교한 전통음식의 우수성에 대해 군집 1에 속하는 한인들은 평균 5점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연변과 몽골은 전통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군집별 인식에 차이가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 뿐 아니라 군집별로도 인식차이가 컸다. 군집별 차이가 특히 큰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군집 1에 속하는 한인들은 옛날 그대로 전통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연변과 우즈베키스탄은 군집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몽골은 차이가 있었고,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세 지역 중 우즈베키스탄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과 이용할 의사는 지역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변은 개발 필요성과 이용의사에 대한 군집별 분포가 같았으나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달랐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군집 2와 같이 개발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한인들 뿐 아니라 군집 1과 같이 개발 필요성에 부정적인 한인들도 실지로 개발되어 시장에 나올 경우 이용의사 또한 적극적이다.

인식유형의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연변과 몽골은 유형구조가 항목들에 대한 인식수준의 고저가 기반이 되어 있는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만드는 항목이 바로 전통음식의 개발 필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과 몽골은 인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동 항목에 대한 점수도 높았으나 우즈베키스탄은 그 반대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 지역에 한국전통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인들이 지닌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과 인식유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생활방식은 한민족에 뿌리를 두고 조선인 및 고려인 자치주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정치사회 및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에 더 밀착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로 개방화시 구화된 우리 사회와는 달리 폐쇄된 사회체제로 인해 기본적으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풍습이나 관습이 외래문화의 영향을 덜 받은 채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을 비롯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개혁 개방 및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핵가족화 등에 따라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전통음식을 접할 기회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식생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파악된 전통성 및 현대화 지향차원 및 유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앞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이 지닌 고유성 및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대중화하여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킴과 아울러 아시아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우리의 고유음식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감사의 글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Daegu University in 2009.

■ 참고문헌

- Chung YS. 2008. Research method on social welfare. Community Publication
- Jeong JY. 2004. Food culture and identity of the Koreans in Uzbekistan. Master's 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ang JS. 2001. National identity of Koreans and living culture in central Asia.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8(2):105-131
- Lee YS, Lee JS, Lee SH, Joung JK. 2004. A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of Kazakhstan in central Asi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8):95-112
- Lee YS, Lee SH. 2004. A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of Uzbekist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9):1-18
- Lim Y. 2007. Uzbekistan's ethnic policy and identity of Korean diaspora.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9. Koreans Overseas. <http://www.mofat.go.kr>

2009년 7월 30일 신규논문접수, 9월 21일 수정논문접수, 10월 14일 채택